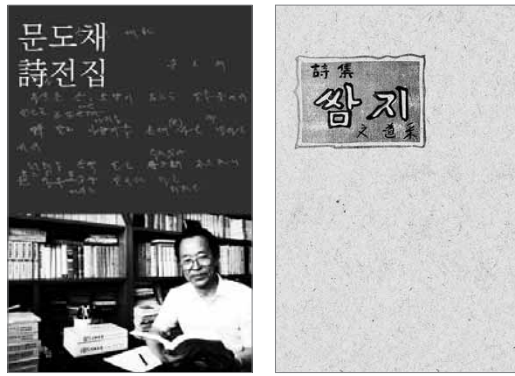


50년 전후세대 남도 대표시인 문도채의 생애와 문학 집대성

순천 출신 탄생 90주년 시전집 발간 첫 시집 '삼지' 복각본도 눈길 "50년대 현대시 명백 유지" 평가



속에서 "문도채 시인은 1950년대에 이미 태양과 속삭이는 뛰어난 시인이 되어 있었다"고 평했다.

또한 이번에 발간된 '문도채 시전집'에는 첫 시집 '삼지'를 제외한 모두 7권의 시집 작품이 수록돼 있다. '처음 써보는 사랑의 시', '남도연가', '달력을 넘기면서', '무등산 너덜길', '산은 산대로 나는 나대로', '황혼, 벤치에 앉아서'와 유고시집 '풍암골 소식' 등 시인의 문학 여정이 오롯이 펼쳐져 있다.

문 시인의 시적 세계는 제 3시집 '남도연가'부터 조금씩 변화된 양상을 보인다. 제2시집 '처음 써 보는 사랑의 시' 이전까지는 모더니즘의 영향과 관련된 작품들이 많았다. 이후로는 일상을 토대로 한 시 창작에 몰두해 형이상학적 경향의 시와 변별되는 시들이 많았다. 그러나 1980년 5월의 아픔을 '무등산'이라는 시를 매개로 직접적으로 노래하기 시작한다.

문 시인은 문인 외에 교육자로서도 족적을 남겼다. 광주상고 교장 등 45년간 교직에 몸담았다. 그의 문학적 제자로 소설가 이상문·백시종이 있으며 시인 김종·황학주·문정영 등이 있다.

또한 총 8권의 시집 외에 문 시인은 '진흙과 모래', '조용한 강자' 등 2권의 산문집을 남겼으며 동서일보 주필을 역임했다. 전라남도 문화상(문학부문), 무등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임동학 시인은 "중앙집권적인 문단 풍토와 연구 속에서 그 평가 대상에서 철저히 외면당해 왔는데, 이번 문도채 시전집과 복각본 '삼지'의 발간을 계기로 시인의 시세계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며 "아울러 광주·전남 작고 시인들에 대한 전집 작업 등 연구조사가 활발히 진행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아직껏 까마귀가 울고 있고 있었다 울음이랬자 눈물도 없는—
무한의 슬픔만을 던져 주는 게—
내 간장이 다—녹는다 폐에 폐—
그래도 모자라서 날 잡으러 왔느냐 왔느냐
빗물에 씻기운 골목길을 돌아보면서 보면서
조상墓地에 목비木碑라도 세워야할
나다 나다 삼대독자三代獨子다
가라—가라 돌맹이를 던지기 전에 우우 우—
어서 가라 훨훨 날아서 서산西山으로 가라
—'단정(斷腸)' 중에서

6·25 한국전쟁의 포연이 잠시 주춤하던 1952년 1월 무렵이었다. '여순반란사건'의 여진이 가시지 않은 남도에서 스물다섯 문학청년이 시집 '삼지'를 상재했다.

순천 출신의 그 청년에게 당시는 "울음이랬자 눈물도 없는" "무한의 슬픔"('단정')에 젖은 세상이었다. 세상은 과연 한 가닥의 희망이라도 있었던가. 청년은 "코를 찌르는 채취"를 뚫고 피어나는 한 줄기 "생명의 호흡"('열차')을 갈망했을 것이다.

이 청년은 전쟁으로 황폐화된 상황 속에서도 시인적 패기와 미래에 대한 전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의 시에 '태양', '문명', '꿈'과 같은 내일과 생명을 상징하는 시어들이 유독 많은 것은 그 때문이다. 이 십대의 푸른 청년은 "보지 않는 뜨거운 광야"('태양')를 꿈꾸며 전쟁의 어둠이 하루속히 씻겨나가기를 기원했다.

승주(현 순천시) 출신 문도채(사진) 시인. '태양 이미지' 내지 '태양 이데아'를 추구했던 그는 한국 모더니즘 문학의 선구자인 김기림의 영향을 받은 남도의 시인이었다.

문도채 시인은 소학교 시절 문예작품 현상모집에 입선, 경성일보에 동시가 실렸으며 1948년부터 시와 희곡 창작활동을 시작했다. 1964년 '시조문학'에 시조 '실솔기'와 2편이 당선됐고 1968년 '원탁문학'

에 시를 발표하면서 시동인 '원탁시'를 중심으로 시작활동을 전개했다. 1970년에는 전국 최초 결성된 시조예술동인회 '영산강'의 창립멤버로 참가했다.

지난 2003년 타계한 문도채 시인의 첫 시집 '삼지' 복각본과 '문도채 시전집'(문학들이) 출간돼 눈길을 끈다. 사후 15년 그리고 탄생 90주년을 맞아 발간된 '삼지' 복각본과 시전집은 문 시인의 문학과 생애를 조명할 수 있는 시들이 수록돼 있다. 특히 사위인 임동학 시인과 딸 문미정 씨가 엮어 의미가 남다르다.

'삼지'는 1950년대 초반 한국현대시사의 단절을 잇는 매우 귀한 시집으로 평가된다. 구상의 시집 '보병과 더불어'(1951)로 대표되는 중군작가(從軍作家) 중심의 시집과 1953년 휴전 이후에 등장한 박봉우 등 전후(戰後) 세대의 시들 사이에 놓여 있는 작품집으로, 문학사에서 남다른 가치를 지닌다.

그러나 문 시인의 '삼지'는 여러 이유로 한국시단의 관심과 평가 대상에서 제외돼왔다. 이를 눈여겨본 이는 광주 출신 고(故) 범대순 시인이었다. 범 시인은 '삼지'에 대해 "1940년대의 암흑과 광명을 뜨거운 정열과 같은 또 희망과 실의 속에 성장해온 해방의 세대가 겪은 혼미와, 그걸 해결하려는 의지"

강성수 시인 2월3일 장편서사시집 출판기념회

강성수(사진) 시인의 '우린 어디서 무엇이 되어 사랑으로 다시 만나라'(서적) 출판 기념회가 2월 3일 오후 4시 30분 광주시 동구 서석동 수정식당에서 열린다.

광주문인협회(회장 임원식) 주최로 열리는 이번 출판 기념회는 강 시인의 문학 인생과 창작활동을

되돌아보는 자리다.

최근 발간된 '우린 어디서 무엇이 되어 사랑으로 다시 만나라'는 작고한 아내를 그리워하며 쓴 700여 편의 시를 묶은 장편서사시집으로 시집 10권에 달하는 분량이다. 모든 시의 주제는 아내에 대한 그리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편 서라벌예대(현 중앙대 예술대)를 졸업한 강 씨는 1966년 김광섭의 추천으로 '자유문학'에 시로 등단했다. 전남의 오지에서 국어교사로 근무하기도 했으며, 필명 '강산에늘봄잔치'는 고운말 이름짓기에서 1위에 뽑히기도 했다.

문의 010-7748-3838.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문화재단, 내일 '문화분권 정책포럼' 참석

문화분권과 자치실현을 위한 지역문화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포럼이 개최된다. 광주문화재단(대표 김윤기)을 비롯한 전국 16개 광역문화재단 연합체인 (사)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이하 한광연)는 오는 31일 세종시 상상문화관에서 '문화분권과 자치실현을 위한 지역문화재단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문화분권의 시대 지역문화재단의 위상과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지역문화정책의 방향, 분권을 위한 과제, 지역문화재단의 역할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김보성 대전문화재단 문화기획실장

을 좌장으로 '문화예술 관련 법과 제도 영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서영수 부산문화재단 생활문화본부장), '문화분권과 지역문화재단의 사업전환 방향'(손동혁 인천문화재단 문화교육팀장), '지역문화재단의 정체성과 역할'(황순주 경기문화재단 문화사업팀 차장) 등 3개 세션별 발제가 있다.

이어 박종달 문화부 지역문화정책과장, 김지원 광주문화재단 정책연구교류팀장 등이 문화분권을 위한 발전방안에 대해 토론한다. 문의 062-670-7432.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박래군 소방관



꽃님이 밴드

'소방관 연탄 시인' '꽃님이 밴드' 책방 음악회

2월3일 광주 '심가네박씨'

광주시 동구 산수동 작은 책방 '심가네박씨'가 새해맞이 문화행사로 '소방관 연탄 시인 박래군과 꽃님이 밴드의 한마당'을 연다.

오는 2월 3일 오후 3시 열리는 이번 행사는 현지 소방관으로, 가수이자 등단 시인인 박래군과 '꽃님이 밴드'가 함께 공연하는 기획으로 시와 노래, 그리고 그림이 함께 어우러지는 한마당이다.

'연탄 시인'으로 유명한 박래군 소방관은 현재 전남소방본부 화순소방서 능주 119안전센터

팀장으로 근무하며, 최근에 그림시집 '119 소방관 아저씨의 연탄꽃이 활짝 피었습니다'(주니어 김영사)를 펴냈다.

함께 공연하는 '꽃님이 밴드'는 민중가요 '파랑새'를 부른 가수로 유명한 꽃님이와 기타리스트 김상운으로 구성된 그룹이다. 꽃님이(이현미·신시와 마을기업이사장)는 심가네 박씨 책방이 자리한 푸른길 주변 마을 재생사업에 열정을 쏟고 있는 활동가이기도 하다.

참가비 5000원. 신청문의 062-229-0687, 010-5205-566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7만원으로 인상 '문화누리카드' 내달부터 발급

올해부터 '문화누리카드' 지원액이 7만원으로 인상되고 사용자제 체육시설까지 확대된다. 또한 '스포츠강좌이용권' 수혜자도 문화누리카드를 중복 발급받을 수 있다.

광주시와 광주문화재단은 소외계층의 문화생활 향유를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 '2018년도 문화누리카드'를 오는 2월 1일부터 발급한다.

문화누리카드의 만 6세 이상(201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여행·스포츠 관람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생활 전용 복지카드다. 1인당 지

원금이 올해부터 7만원 지원된다.

지원금은 주민등록 상 같은 세대 구성원에 한해 대표 카드 1장에 총 15장 이내 합산 사용이 가능하다. 카드 1매 1회당 100원~10만원까지(연간누적금액 200만원까지) 본인 현금 충전이 가능하며 자기 부담금에 대해서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

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재충전은 오는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지역 주민센터와 문화누리 홈페이지(www.mnuri.kr)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문의 062-670-7912.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Aroma Life
www.aroma-life.co.kr

! '건강'과 '아름다움'을 모두 갖춘 !
맞춤형 기능성 속옷의 명가
아로마라이프

아로마라이프 기능성 속옷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를 받은 유니크한 디자인과 일본 도레이社 LYCRA (별단면옥각형)사용 및 특수 물질가공(원적외선, 음이온효과)으로 편안한 착용감과 생리적인 불편함을 해결해 주고 건강을 생각한 속옷입니다.

<p>아모리이온</p> <p>브라+슈트+거들 4개국 특허 3단 일체형 슈트</p>	<p>아모리이온 롱바디</p> <p>브라+슈트+거들+레깅스 4개국 특허 4단 일체형 슈트</p>	<p>아실리 바디슈트</p> <p>블랙은사 바디슈트의 은사 레이스 품평회 1등</p>	<p>비비드 아모르</p> <p>러닝+팬츠 2단 일체형 남성용 슈트</p>
--	--	--	--

대표전화 1588-2219